

---

---

#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감문**

---

---

2012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목차]

이병석	국회부의장	4
이재오	국회의원(5선)	6
박지원	원내대표	7
김정훈	정부위원장	8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9
강창일	지시경제위원장	10
백재현	국회의원	12
홍중학	국회의원	13
김종훈	국회의원	15
이노근	국회의원	16
정희수	국회의원	18
김진태	국회의원	19
김한표	국회의원	21
유은혜	국회의원	22
홍문표	국회의원	24
정수성	국회의원	26
이진복	국회의원	28
이철우	국회의원	29
김진표	국회의원	30
이헌승	국회의원	31
강기윤	국회의원	33
강은희	국회의원	34
김기준	국회의원	35
김용익	국회의원	36
김현미	국회의원	37
박영선	국회의원	38
김현숙	국회의원	39
심윤조	국회의원	41
김민기	국회의원	42
김성주	국회의원	43
김영환	국회의원	44
김우남	국회의원	45
김학용	국회의원	46
류성걸	국회의원	47
류지영	국회의원	48
문병호	국회의원	49
민병주	국회의원	50
최원식	국회의원	51
박대동	의원	52

박범계	국회의원	53
박병석	국회부의장	54
박혜자	국회의원	55
박민수	국회의원	56
오영식	국회의원	58
유기홍	국회의원	59
박기춘	국회의원	61
이한성	국회의원	62
유승우	국회의원	63
신장용	국회의원	64
안규백	국회의원	65
조경태	의원	66
김영주	국회의원	67
김기식	국회의원	68
윤명희	국회의원	69
이낙연	국회의원	70
이언주	국회의원	71
이완영	국회의원	72
이윤석	국회의원	73
이재영	국회의원	74
이종훈	국회의원	75
최동익	국회의원	76
한기호	국회의원	77
홍지민	국회의원	78
홍영표	국회의원	79
황영철	국회의원	80
김을동	국회의원	81
강석호	국회의원	83
이현재	국회의원	84
김희정	국회의원	85

이병석 국회의장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모범의원상 수상소감문

이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범의원 상은, 21세기 의회환경 변화에 부응해 변화된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한 의회리더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민의 호홉과 삶을 펄떡이게 하는 생동하는 의회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안하게 해 달라는 기대이자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요구와 희망을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로 녹여내는 것이 의회와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임에도, 뜻 깊은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도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국민으로부터 선택과 부름을 받은 명예로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뿌리와도 같은 기반인 국민의 소중함을 알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갈등과 대립, 분열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존동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방과 참여를 통해 국민공감과 국민감동을 실현하는 '선진정치로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회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회가 추구해야 할 21세기의 변화된 모습과 역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법, 정책감사, 예산심사 등 입법부 고유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상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의회와 정부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내게 나무를 베기 위해 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우선 나는 도끼를 가는 데 45분을 쓸 것이다”라는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되새기며,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보다 창조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보다 변화된 공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은 국회를 늘 깨어있게 해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고, 진화된 정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지를 깨우치는 준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올해로 14년째 활동하고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그 뜨거운 열의와 노력에 격려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상은 그동안 저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을 대표하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오 국회의원(5선)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모범의원상 수상소감문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모범의원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같이 상을 받게 된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선 국회의원이지만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방대한 조직력으로 무장한 행정부에 맞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지난(至難)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부여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항상 초선 의원 같은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왔습니다.

이번 2012년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으로’라는 테마로 행정 권력의 발현이나 정책시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점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지하기 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 제 눈과 귀로 보고 듣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행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영상자료를 통해 각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하는 국정감사는 항상 깊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게 국정감사 모범의원이라는 큰 상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노력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지는 않았나 반성해봅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의 활동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평가위원님들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12년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 소감

먼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2년 국정감사 모범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게 올해 국정감사 모범의원상 수상은 더욱 뜻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2010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시작한 이래 12년만에 처음으로 현역 원내대표로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래 또 한번 현역 원내대표로서 수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모범·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고, 그 중에서도 현역 원내대표로서 2번을 수상하게 된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 때마다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셨습니다.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밀하고 공정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중 하나인 국정감사와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지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과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 지 원

김정훈 정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입니다.

제17대, 제18대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이어 제19대 국회에는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에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서는 금번 201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았으며, 정무위원회 의원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기관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임에도 원활한 회의진행과 더불어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책무를 다하여 준비한 감사건들이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받아 국민들에게 충분히 감사결과를 전달하였기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상 수상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으며, 서민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3대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무역 1조 달러,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여성·빈곤층 등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국가는 ‘모든 국민을 품는 커다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가정은 아이들을 편애하거나 홀대하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결국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중간층을 지켜내야 우리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복지’는 시대정신이며,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속 위원들과 정부 부처가 정책적 아이디어를 쏟아 내고, 그것을 잘 담아내어 완성된 복지 프로그램이 빚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폭증하는 의료비 대책,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개편방안, 노인 일자리 만들기, 기초노령연금인상, 장애인연금 현실화, 복지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지적하며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전달 체계와 재정의 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인 복지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니터단의 노력으로 국정감사가 정쟁이 아닌 정책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모니터단 한분 한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상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이 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를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

수상소감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강창일

2012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해주신 지식경제위원회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운영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발전적인 충고와 비판을 해주고 있으며, 오늘과 같은 결실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지식경제위원회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실물경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우리 지식경제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정  
쟁보다는 정책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여야 의원들 간의  
화합 또한 매우 잘 되어 국회 내에서도 우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손꼽히  
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에도 대형유통업체와 편의점 업계의 CEO들을 출석  
시켜 무분별한 시장상권 확장, 도둑 개점,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 등의 행태  
에 강하게 비판하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인 중소기업 적합업  
종 선정,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전통시장 살리기 등에  
대해서도 정부 및 업계 관계들에게 따져 묻고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상  
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한 전력수급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많은 전력을 값싸게 쓰고 있는  
산업용 전기값을 현실화하도록 하였고, 동계 전력난에 의해 제2의 9·15정전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의 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문제와 품질검증서 위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점  
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저를 비롯한 우리 지식경제위원들은 우리 상임위가 원활히 잘 운영  
되어야 정부의 국정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나아가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의 영위하실 수 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본연의 역할의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12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수상함에 감사드리며, 뜻 깊  
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 광명갑 출신 백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광명시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였는데, 3년 연속으로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올해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하게 되어 준비가 쉽지 않았는데, 귀한 상을 다시 받게 되니 19대 의정활동에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성범죄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 중 경찰이 절반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경찰에 의지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가 세계 108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했고, 청소년 정책의 상호연계성 부족으로 기준 연령이 불일치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단순히 올해 국정감사의 문제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여성가족부 등 소관기관의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일정상 다른 상임위원회가 일정을 마친 이후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의원 요구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가 많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수상을 계기로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게 됩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 배려에 힘쓰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도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종학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홍종학(민주통합당·비례대표)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그 동안 시민단체 활동가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생활해 온 저로써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첫 번째 국정감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은 제게 큰 기쁨이자 국민의 대표로써의 책무를 더욱 열심히 하라는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맞는 첫 국정감사가 때론 힘들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주어진 20여분의 질의시간 내에 상임위 소관 정부기관들의 모든 정책사안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임위 내 동료 의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협력하지 않았다면 효과적인 질의가 과연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첫 국정감사를 맞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곳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곳곳에서 재벌에 대한 정부의 특권·특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지난 5년간 누적 재정수지는 -111.3조원에 달하고, 순국가채무는 참여정부 말에 비해 100.6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부채는 214.2조원이, 가계부채는 256.6조원, 기업부채는 599.5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재정 실패의 한 원인에는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국정운영과 관행에 의한 부자감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벌면세점과 대기업 금융기관 지원입니다.

재벌면세점인 호텔신라, 롯데는 사업특허권이 만기되어도 입찰 없이 허가 갱신을 할 수 있어 스스로 철수하지 않는 한 영원히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가 수백억 원을 들여 파라다이스를 사려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큰 이익을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모두 가져갑니다. 약 1조의 매출을 올리는 롯데 면세점의 수수료가 고작 90만원일 뿐입니다.

기재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자의적으로 활용하여 삼성증권

등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3년 동안 최소 384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MB정부는 국가재정이 파탄나자 이를 가리고자 신규 국고채를 대량 발행했고, 대기업 금융기관들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중금리보다 50% 썩 이자로 대출받았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조차 미약한 지원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는 상황에서 상위 1%의 소수부자들과 재벌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특권과 특혜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저의 마음은 내내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들어온 만큼 재벌을 비롯한 소수 특권층에 대한 특권·특혜를 국민들앞에 밝혀내는 '경제민주화의 햇빛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동안 지금보다 더 밝게 비추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잘 살게 되고, 한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구조의 틀을 만들어 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개선하는지,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성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NGO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경제민주화 햇빛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지표인 농부 전우익 선생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란 말 속의 뜻처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지만 큰 걸음을 걸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위원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김종훈(새누리당 서울 강남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 을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우선,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 15대 국회 말부터 14년 동안 국민을 위한 국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사는 매년 한 해의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올해의 단어로 'omnishambles'(총체적 난국)를 선정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저는 제19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해 보는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國益'과 '民福'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임했습니다.

저는 우선 금융권들의 사회공헌사업 저조, 유명무실한 동반성장펀드 사업,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 분식회계 실태 고발, 공시부 직원의 주식거래 방치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분야에서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특히 지입차주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중소하청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면서 치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은 아쉬움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앞으로의 국정감사에 더욱 힘쓸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國利民福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근 국회의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誠心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이노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수상이기에 더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용기백배해서 더 노력해달라는 채찍질로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흔히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근 한 달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부처별 기관별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과실(過失)을 바로 잡는 국정감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붙여진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여 일 동안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기관들을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채가 심각한 공기업들이 지방이전을 틈타 기존부지보다 최고 4배나 넓은 호화 신청사를 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방만한 기업 운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경전철 3개 노선이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폐기전 체결된 협약이란 이유로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이 불가피하게 지불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국토부로부터 MRG 재조정 검토, 무리한 민자사업 추진 금지 등에 대한 시정을 약속받았습니다.

셋째, 댐·교량·건축물·상하수도 등과 같은 주요시설물이 매년 지속적으로 안전미흡 D등급, 안전불량 E등급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시설공단으로부터 개선노력을 약속 받았습니다.

넷째, 인천국제공항의 귀빈실 이용 혜택을 주는 기업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단독으로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냈으며, 국토부로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치며,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짧은 국감은 끝이 났지만, 이번 국감동안에 제기되었던 소관기관의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확인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을 함께 돌며 고생하신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 회 의 원 이 노 근

정희수 국회의원

##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항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참일꾼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입으로 더 나은 사세(斯世)를 말하기 보다는 행동으로 정도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은바 소임과 초심 또한 잊지 않고자 애썼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7년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제19대 첫 국정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 등원 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만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을 맡아 짧은 기간내에 소관 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으나,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기강 확립, 그리고 군 전략 강화 및 자주 국방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보좌진과 함께 밤을 새가며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늘의 값진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성실한 일꾼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모니터단 자원봉사자 여러분, 김대인 상임공동단장 및 NGO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1

국회의원 정 희 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

##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 진 태(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올해도 국정감사 평가를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처럼 명예로운 수상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 참여한 국정감사에서 받게 되는 값진 상으로, 개인적으로 그 감회가 남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치러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늘 의정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온 실천정치와 민생정치의 소신이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정 발전에 앞장서 오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권위와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큰 명예로움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영역 전반에 걸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국감, 현장국감, 민생국감이라는 취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들부터 우선하여 각자의 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함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지적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선에 관한 정책자료집 5권을 발간하여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제19대 국회 임기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되새겨 봅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사명,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된 여러 의원님들의 더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회의원 김 진 태



김한표 국회의원

초심을 잃지 않는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해양관광도시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1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저를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국회의원으로서는 무한한 영광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님들과 전국의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 사회단체의 약 1,000여명의 모니터 요원들께, 그 간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종 공공요금의 인하를 위한 원가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 지식경제부 장관과 관계 부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절하고 짜임새 있는 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제가 국정감사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시고 큰 관심을 가지고,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거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 국회의원

교육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5년을 희망하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12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  
유은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1. 21

□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고양 일산동구)입니다.

□ 먼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동분서주했던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위원 1천여 명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아주셨기에 더욱 기쁩니다. 오늘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채찍질임을 명심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 2012년 국정감사는 19대 국회의 첫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일정에 묻힌 부실국감, 불성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운 한편, 행정부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달려왔고, 그 진심이 통한 결과가 바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국감이기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출범한 ‘MB정부 5년과 이주호 장관시대 교육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통계분석을 통해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들여다볼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고 자평해봅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학생과 교사 자살, 사교육 단속 풍선효과, 학교

의 학원화, 일제고사 실시,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의 실체 등 국민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짚었고, 학교폭력대책의 실상과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일본수산물로부터 위협받고 있음을 알리는 등 현장의 살아있는 이슈를 발굴해 문제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과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과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를 강하게 전달한 결과, 정부가 내년에 특수교사 선발인원을 460명 추가 증원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사학재단들의 전횡과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의 난맥상을 짚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것 또한 이번 국감에서 거둔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불시 정지된 원전 재가동 승인에 단 4분이 걸린 일을 밝혀내는 등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키우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아이와 어른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세워주신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로 지역민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유은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홍문표 의원입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김대인 상임공동단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갖춘 상으로써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 그리고 14년의 전통성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가슴 깊이 새겨,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가안보·사회안전·국민행복 등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감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폭로성·한탕 국감을 지양하고, 정책 국감을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우리 '농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의 고향인 농어촌과 우리의 농축·수산업은 시장 논리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포기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입니다. 현재, 1차 산업에만 머무르고 있는 농축·수산업을 2·3·4차 산

업으로 육성시켜 농민의 소득과 희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의 정치소신인 '농어촌 · 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일념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기상재해와 다국적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 회 의 원 홍 문 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위원)

정수성 국회의원

<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위원 소감문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북 경주 출신 국회의원 정수성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남겨두고 치러진 금번 국정감사는 소위 '대선국감'이라는 논란 속에서 '부실감사'의 우려를 낳았지만 본 위원에게는 국내 지식·산업·경제 전반에 대해 깊이 성찰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지지부진한 정책에는 꼼꼼하게 잘못을 따져 건강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공기업들을 만들어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감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부실운영과 관련하여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방안,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문제점, 중·저준위 방폐물 반입수수료 조정 등, 원전과 관련된 현안들을 집중 추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력 수요관리제도의 허점, 정산조정계수 협상의 마찰음, 연료비연동제 시행유보에 따른 부작용 등,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경부 및 한전의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이라는 큰 명제 속에서 대·중소기업간의 사업조정제도의 낮은 실효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문제, 전통시장 안전시설 부실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격려를 보내주시는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2년도 우수국회의원 영광을 국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끝으로 항상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NGO 모니터단에 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국회의원

## 2012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동래구 출신 이진복입니다.

먼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4년 전통의 '국감NGO 모니터단'의 '2012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14년동안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충실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평가하고 노력하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가위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항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19대에는 지식경제위원회로 배정이 되어 국정감사를 치루면서는 '현장중심', '실생활 중심', '서민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산민생투어를 통한 실생활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고, 서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인한 재래시장의 및 개인슈퍼 이동효과를 분석해 밝혀 지역사회와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대한 미비점들을 점검해 전력수급예측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8대에 이어 19대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남다른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의 수상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항상 초심의 자세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수상의 기쁨을 동래구민여러분들과 저를 성원해 주시는 모든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진복



이철우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이철우 국회의원

우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로 3년째 수상하게 되어 그 기쁨이 더욱 큼니다.

상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만큼 수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상 중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이 상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이 특별한 이유는 특정단체의 선호도나 단체의 소속감에서 비롯한 수상이 아니라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선정하여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그야말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수여하는 이 상은 2012년 국정감사에 대한 칭찬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운영위원·국토해양위원으로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 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관련 상임위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토를 당나라 시대 고승인 임제선사가 말한 ‘수처작주(隨處作主)’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든 주인된 마음으로 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본 상의 수상과 함께 저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처작주’의 마음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1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복지와 현존위협은 물론 미래위협까지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에 대해 큰 틀에서 접근해보자'는 목표를 세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늘 그래왔듯, '단순한 폭로나 일회성 문제제기는 지양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는다, 문제제기와 함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주간의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장병들의 의식주 - 특히 피복류 - 문제와 FMS 등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 노크귀순의 문제점과 GOP경제강화 보완책, 군 복무 중 학점 및 자격증 취득기회 확대 등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 전국의 270여 시민·사회단체 소속 1천여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단과 전문 평가위원들이 우수국회의원으로 평가해줬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나은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2012. 11. 23.

국회의원 김진표

이현승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진을 출신 국회의원 이현승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을 알고 더욱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자평하자면 “여러 가지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혹독한 평가를 내렸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에 대한 감사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상대 대선후보 검증과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면 대형이슈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을 뿐,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숨겨진 노력들도 많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했던 내용들을 향후 대정부 질문, 법률안개정, 예산안 과정 속에 충실히 반영시켜 최대한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냄으로써 경기침체, 고용불안, 고령화사회로 표현되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의 경우, “21세기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검토”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역대 국정감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해운부문을 집중조명해 국토해양부가 그간 해운정책에 대해 無관리, 無투자, 無관심, 無의지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선원임금관리채권제도와 톤세제 관련 법령의 정비, 용대선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진구의 한복판에 자리잡아 경제활동, 도시미관, 환경문제 등 부정적인 문제가 엄청난 도심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과 해양수산부 부활, 북항 재개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문제, 에코델타시티 추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등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은,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권한은 남용되거나 미흡하게 실행되어서도 안 되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도 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부산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해양 산업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한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현승

강기윤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문

지난 날 헌정역사상 우리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또 국회가 민주의회로서 발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표기관이라는 역할보다, 정치권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컸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책무를 항상 인식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인데, 이번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받은 이 상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 끝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철주야,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강 기 윤

강은희 국회의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2년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희입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전통과 공정성으로 명망이 높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엄정한 국정감사 모니터·평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님들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이를 통해 잘못된 법령을 바로잡거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정감사를 처음 준비하고 실시하면서 늘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만, 막상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초심은 잃지 않았는지, 모든 힘을 다 쏟아 붓었는지, 아쉬움과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제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의 큰 의미를 늘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정치의 안내자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과 평가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3

국회의원 강은희

김기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기준 (정무위원회)

우선 저를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 국정감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안팎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성격상 정부의 행정 전반은 물론 금융, 경제, 보건까지 살펴봐야 하므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더 많은 공부와 연구 그리고 소통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의 첫 국감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해야 할 것들과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금융 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예상외로 높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어렵고 소외된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용익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수상 소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 용 익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치러본 국정감사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한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감현장모니터링에 애써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이번 국정감사의 방향을 MB정부의 주요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동안 개선되지 않던 정부의 관행적 행태를 개선하는 데에 두고 보건, 의료, 복지정책을 다뤘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으로 자살한 할머니의 삶, 활동보조인이 없는 야간에 화재가 나서 손 쓸틈없이 죽음으로 내몰린 중증 장애인의 삶, 무상보육 폐기라는 정부의 원칙없는 반복지 정책에 앞으로 아이키우기가 더욱 힘들어진 부모님들의 삶을 누구보다 먼저 보살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질책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수위원 선정을 발판 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 현 미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할 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도 과분했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또 다시 받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 747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 평가, 경제민주화 및 중소기업·서민경제 활성화, 조세피난처 대책 등의 정부행정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법제도 개선과 행정 개혁을 이루기에는 아직 해야 할 활동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 우수의원상 수상이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을 충실히 전개하라는 꾸지람으로 깊이 가슴에 새겨 활동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3주간 국정감사장에 방문하여 모니터 하느라고 수고하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활동을 주도하신 법률소비자연맹 등 NGO단체 대표님들 이하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선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입니다.

먼저 ‘국감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으로 여러 제약조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주시는 상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법치가 행해지도록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로 알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게다가 경제조차 좋지 않아 국민들의 마음이 참으로 춥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 한다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신뢰 받는 따뜻한 정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햇살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큰 나무에게나 작은 나무에게나 심지어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에게 까지도 공평하게 햇살을 비추어 만물이 잘 자라게 합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큰 나무들이 햇살을 다 가리지 않도록, 중산층과 서민들도 따뜻한 ‘법의 햇살’, ‘정의의 햇살’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사회 구석구석까지 공평하게 ‘법의 햇살’, ‘정의의 햇살’을 비추게 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서 성실한 모니터 및 공평한 평가를 해주셔서 내실 있는 국정감사 지킴이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국회의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한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무상보육 기조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무상보육 정책을 후퇴해 2013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국민과의 약속인 무상보육 정책을 반드시 지키고자 보육예산 확보 및 양육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등의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슈퍼박테리아를 비롯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감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학교 앞에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실정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의 위탁·직접 투자 결정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국민의 혈세가 매년 약 7조원씩 지원되는 상황이지만 건보재정의 운영을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재정을 국민의 통제가 가능한 기금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만족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이점을 잊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고견을 듣고, 새기며 일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수상을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다가오는 2013년 국정감사는 올해보다 더욱 견실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회의원 김 현 숙

심윤조 국회의원

##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갑 출신 국회 외통위 심윤조 의원입니다.

먼저 뜻 깊은 수상의 기쁨을 전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꼼꼼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지원해주고 계신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 아직 더 많은 배움과 가르침이 필요한 저를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은 보다 열심히, 그리고 더욱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활동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외교·안보 발전의 일선에서 더욱 열심히 뛰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공관 에너지보좌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지적하였고, 여성외교관의 육아·복지 지원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해외 공관감사를 통해 투표율 재고를 위한 각 공관의 책임 있는 활동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탈북 청소년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 확대를 지적하던 중 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EBS 3자간 MOU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약한 첫 걸음이지만 이번 협약이 미래 통일 한반도의 선두에 설 탈북 청소년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총체적인 국가 정책을 점검하고 미진한 점들을 검토·보완하는 중요한 감사입니다. 때문에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의미에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주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항상 국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민기

안녕하십니까? 용인을 출신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국정감사 준비로 애쓰신 피감기관의 직원 여러분과 체계 도움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제가 첫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의미 있는 상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국회로 보내주신 용인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의식이 투철해야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는데 중심에 서 있는 위원회로,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국정감사를 치르며 자료요구나 국정감사 방법, 시기, 범위 등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 믿음을 주는 정치권이 되도록 부족한 부분은 법을 고쳐서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제대로 하겠습니다. 한 눈 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2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성주(전주·덕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10월 국정감사를 전후로 국감 모니터링을 위해 준비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를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그리고 가장 높은 자살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사회 지속 가능성에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불안사회, 위험사회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민간과 시장에 내맡겨진 복지서비스를 공공 부분에 의한 직접 공급을 늘리고, 민간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복지행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지는 극심한 시장경쟁에 낙오한 이들이 패자부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를 동정과 시혜로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밑알의 각오로 임했던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높이 평가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국회의원

2012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안산 상록(을) 지역구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2010년, 2011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에 이어,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과 저를 성원해주신 지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무척 뜻 깊습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이끌어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지내며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끌었고, 2012년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진짜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에 집중했고, 실제 해결책을 끌어내는 <민생국감>에 주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입법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향후 국정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 김우남

아무리 선한 정부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난 17대부터 시작하여 9번째 임한 국정감사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수상이 더욱 더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격려와 채찍이라고 여기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3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FTA 대책 미 이행, 정권의 낙하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회원조합의 최저임금제 위반,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 방만 경영, 공금횡령, 근무시간 카지노 출입, 필로폰 투약 등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농어촌 공사 시행 공사의 저가하도급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발로 뛰는 조사를 통해 수입 바나나에서 국내 유입이 금지된 규제병해충을 직접 발견하여 뺨 뚫린 국가식물검역시스템을 복구할 것을 주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제주도민과 국민들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더욱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270여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상이라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감에서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으로서, 법조계의 시각과 법적 지식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관점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피해자의 편,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에 봉사하기보다 군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모두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9대 국회에서도 겸허한 자세로 민생과 서민을 챙기며, ‘국민과 소통하고 믿음을 주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든든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바탕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위원)

국 회 의 원 김 학 용

류성걸 국회의원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갑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먼저 2012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함께 고생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보좌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 해주신 정부부처를 비롯한 피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평가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 중 하나인 국정감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국정감사와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도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국정감사 전 과정을 정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주신  
1천여 명의 NGO모니터위원 여러분과 평가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  
씀을 전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2012년 첫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더욱 노력하  
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3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 올림.

류지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지영입니다.

먼저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당부로 알고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분석과 정책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의미 있는 국정감사로 만들고자 휴일도 반납한 채 보좌진들과 함께 뛰어온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국정감사의 자리가 '이슈만들기'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잠깐의 관심 끝기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통해 정책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기본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이번 첫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로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들을 살피며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은 없는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사항은 없는지를 낱알이 파헤치며 따뜻한 정책실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하여 제안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한창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 했던 사항들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해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류지영

문병호 국회의원

부족한 저를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문 병 호 (민주당, 인천 부평갑)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  
부터 격려를 받으니, 그 어떤 칭찬보다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저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과 눈물을 대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재  
벌과 특권층, 외국자본, 관료들이 만들어놓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권층을 위한 법제도와 예산이 99% 국민의 민  
생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2012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고속도  
로 등 민자도로,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등 민자철도, 우면산터널  
등 민자터널, 민자다리, 민자항만 등 민자사업의 비싼 요금과 혈세낭비 실태  
와 원인을 밝히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도로공사가 30년 법정징수기간이 지난 경인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를 임의로  
징수해온 통합채산제의 문제점도 낱알이 밝혀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  
는 통합채산제를 승인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임을 지적하고, 국민  
의 입장에서 법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  
습니다.

인천 영종-청라지구 주민들에게 건설비까지 선부담시킨 제3연육교가 표류하  
는 이유도 밝혀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민자도로업자 간의 공문과  
서류를 낱알이 추적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2조7천억원이 투입된 경인  
운하에서 1조원이상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공공성을 위해 애썼지만, 아직 저는 부족  
한 점이 많습니다. 인천공항과 KTX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문제 등 할 일도  
많습니다. 때문에 NGO모니터단의 관심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  
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을 계기로 더 열심히 민의를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애써주신 시민사회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병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  
민 병 주(새누리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맞이한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계와 교육현장의 폭넓은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 개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계와 교육현장 답사 및 관계자 면담, 의견 청취, 설문 조사 등 과학기술과 교육분야의 부문별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산하기관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여성의 섬세함과 ‘寸鐵殺人’의 정신으로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감기관에 비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문제나, 피감기관들이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국정감사의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의 문제점들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빠듯한 일정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큰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 저의 보좌진들과 꾸준한 관심과 비판, 질책, 그리고 성실한 모니터링을 해 주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국회의원

푸릇한 5월의 꼬트머리에서 조선의원으로 국회에 첫 등원하는 설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조선의원은 세 가지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부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는 국가공권력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권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는 사실에 접근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부족하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이 세 가지 목적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감사우수위원이라는 뜻밖에 좋은 평가를 내려주셔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대선과 겹쳐 많이 부족했던 만큼 앞으로 남은 4년의 의정활동을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국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랑이 빠뚫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땅 깊이 쟁기를 박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신 시민사회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회의원 최원식

박대동 의원

< 2012년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소감문 >

국회의원 박 대 동  
(새누리당, 울산 북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대동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과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부족한 저를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하여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1천여 명의 국정감사 모니터단 여러분께서도 국정감사 기간 내내 온·오프라인에서 꼼꼼하게 현장을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이번 19대 국회에 당선돼 들어온 초보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입문 과정에서 새롭고 참신한 정치를 위해 헌신하고자 다짐했던 대로,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된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참신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비전국감’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여일의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지 감시하고, 방대한 정부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여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면허증을 따고 첫 주행을 마쳤는데, 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벗어나지 않고 무난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이번 첫 국정감사를 경험 삼아, 더 고민하고 준비하여 다음 국정감사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칭찬받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NGO 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번 NGO 모니터단에서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저를 선정해 주셔서 무척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준비한 국정감사에서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이 보다 더한 영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더없이 큰 격려와 응원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에 대한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권력에 대한 개혁의 과제를 정치권에 얹어주시어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지적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정책 대안들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일회성 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서민의 대변자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NGO 모니터단과 국민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

< 수상 소감문 >

국회부의장 박병석(민주당, 대전 서갑)입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의 270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권위와 14년 전통을 키워왔기에 더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제시에도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번에 걸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고 18대 국회 이후 5번 연속 수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책임감도 느낍니다.

수상을 저의 채찍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주신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관계자분들과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느라 수고하신 1천여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을 돌면서 생생한 국감을 모니터하신 전국의 270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1천 여 명의 모니터 요원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앞으로 우리 교육을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첫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는 삼각틀 속에서 각각의 현안들이 있는 만큼 본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몇 개월 동안 교육현장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자료집 '교육, 그 현장을 말한다'제1탄 보고서에 이어 내년에도 현장보고서를 발간하고 투명한 렌즈로 교육의 불편한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볼 계획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더욱 낮은 자세로 제일 먼저 어렵고 힘든 곳에 맨발로 뛰어들어갈 각오를 다짐해봅니다.

국회 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평가받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땀흘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수 국회의원

< 수상소감 >

우수의원 선정을 계기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출신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4년 이란 긴 시간동안 1천여 명이 변함없이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평가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모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의원 한 명씩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NGO 모니터단에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이러한 업무를 아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에 매우 놀랍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곳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모니터 위원들의 눈빛을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지켜보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니터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모니터위원들의 이러한 자세가 지금과 같은 전통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이 의정사의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초선의원으로서 NGO 모니터단의 수상을 특별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통과 권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상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

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엄정하게 모니터하고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충실을 기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정감사에 모범적으로 임해주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회의원 박 민 수

오영식 국회의원

정책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서울 강북구 갑)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라는 채찍이자 격려라 생각하겠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쉽기도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도 해 봅니다. 국정 전반을 돌아보고 국민들의 시선으로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라는 국정감사의 존재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원전 안전, 전력수급 문제를 비롯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대형마트와 SSM 등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생과 직결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증인 출석부터 시작하여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가 여전히 되풀이 되었고,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려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그저 보여주기식의 활동이나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지적하고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정책에 대한 실천이 있고, 변화가 있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교육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관악 갑)

유 기 홍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20일의 국정감사 기간 내내 평가하느라 고생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여러 단체 중에서도 법률소비자연맹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일한 국정감사 평가 단체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수의원 선정을 받게 되어 더 없이 영광입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도 상을 몇 번 수여받았기 때문에 제게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2012년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내실있는 국감”, “제도개선과 법정비가 반드시 뒤따르는 실속있는 국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반드시 개선대책을 뒤따르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국감을 하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대입 입학사정관전형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학교반경 1km 이내의 성폭력자 거주현황을 조사해 5명 이상이 모인 고위험군 학교를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 요구했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한 학교를 찾아내 현재 시정 중에 있고,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차별받아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임 처분에 강력히 문제제기 했으며 학교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정규직을 위한 제 3의 대안으로서, 교육공무직을 제안했습니다.

대선 이슈와 후보 검증에 국정감사 주제가 묻힐까 우려했지만, 후보검증은 물론이고 정책 검토도 두루 이뤄졌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이었다는 평가도 겹쳐히 인정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국감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지적한 정책국감을 위한 따금한 조언과 지적사항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제도개선을 할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도 함께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먼저 2009년, 2010년, 2011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NGO모니터단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와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국정감사 상황실장을 겸임하면서도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 수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며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이번 국감을 어물쩍 넘어가려던 행정부의 노림수에 걸려들지 않고 최대한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감사에 임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앞으로도 입법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초선의원의 마음가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국정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 감시에 보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성 국회의원

국가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북 문경·예천  
국회의원 이한성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 출신 국회의원 이한성입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의 270개 분야별 전문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이 모니터하는 14년 전통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주시는 상이기에 더욱 뜻 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함께하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덕분에 더욱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이 저에게 부여해준 신성한 의무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 저는 인외국민 정치본(寅畏國民 政之本 : 국민을 경외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정치철학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 2012년도 국정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부처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재정·경제정책에서 국민이 직접 느끼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엄정한 자료분석과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면세유·유가보조금·농기계보조금·민자사업 등 나라 곳곳에서 새고 있는 재정문제를 지적하여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11월 12일 '국가재정 누수 개선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진 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회의원 李翰成

유승우 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함께 만드는 심포니 사회를 위해

국회의원 유승우 (새누리당, 경기 이천)

2012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 270여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 19대 국회 개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래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신 것은 멀리 내다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국정에 임하라는 명령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갖고 더 많이 생각하고 배우는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상생(相生)하는 대동사회(大同社會), 함께 만드는 심포니(symphony) 사회 구현을 위해 항상 일일신(日日新)의 자세로 정치를 새롭게 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참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상(賞)은 저의 「개인적 상」이 아니라, 함께 고뇌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염원하는 분들의 뜻이 모인 「공동의 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11. 23.

신장용 국회의원

2012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

국토해양위원회 신 장 용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수원을(권선구))

우선 20여일의 기간 동안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공동단장님을 비롯한 모니터 요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임하는 국정감사에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 주신 수원시민 특히 권선구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의정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 14년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데서 보람과 함께 긍지를 느낍니다.

2012년 국정감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국감이라는 중요성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극심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파행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맞이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세워 임하였습니다.

첫째, 당리당락을 떠나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둘째,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

셋째, 탁상공론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 강구를 촉구할 것

넷째, 폭로와 질타보다는 낯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 등입니다.

이같은 원칙에 충실히 입각해 꼼꼼하게 준비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묵묵히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국회의원

2012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양상한 가치를 드러낸 裸木사이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국정의 奔忙함 가운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새가 없었지만, 14년 전통의 '국감NGO모니터단'의 우수국회의원 수상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줍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사랑이란 자양분을 먹고사는 직업으로서, 시민과 사회단체의 평가에 의해 수상을 하게 되어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지킴이를 자청하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憂國表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소통하는 것은 충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 못지 않은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바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국회의원과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대화합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도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축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항상 일관된 恒心의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회의 등불이 되어준 NGO관계자 여러분의 建安하심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회의원 안 규 백

조경태 의원

## 201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민주당 조경태의원

제가 영광스러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1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된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수상은 저의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의원실 보좌직원들의 도움과 저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해에 이어서 뜻 깊은 상을 수상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12년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라서 대선후보 3인에 대한 치열한 정치공방과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민생을 떠난 정치국감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정부살림과 국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수상이 국민들께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국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와 평가를 주관하여 주신 270여 시민·사회단체와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 그리고 각 분야의 평가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입니다.

중산층, 서민의 삶이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19대 국회의원이 되어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첫 국정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포커스를 '정치'가 아닌 '서민'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민경제가 벼랑 끝에 가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 문제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 했고, 서민금융에 문제점은 없는지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살폈습니다.

비록 올해 4월 총선을 치른 후 당내 대선후보 경선 등으로 국감을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금융과 비금융 분야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려놓음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첫 단계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소매점주들의 담배판매권을 대기업이 소유하는 문제, 서민금융의 이율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는 문제, 생활용품에 독성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움도 큰 국정감사였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앞으로 보다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 국회의원

[수상 소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였고,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상시국감을 한다는 자세로 개원 전인 6월부터 국정감사를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단기간에 집중된 국감기간, 한정된 질의 시간 등 현행 국감제도의 문제로 인해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다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도 한정되고 짧은 시간과, 부실한 자료 제출, 증인 불출석으로 국감을 마친 보람 못지않게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입법기능과 더불어 국회의 주요한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려면 상시국감을 실시하고, 자료제출거부나 부실자료제출에 대한 제재나, 증인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던 입장에서 이제 평가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 생각하고 기본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상은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위해 더 노력하라는 격려와 체찍질로 알겠습니다. 4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주신 국민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늘 새기고 경청하겠습니다.

2012 국정감사의 공식 일정은 10월로 마무리되었지만, 국감기간 중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시정조치 계획과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달여 휴일도 없이 고생한 보좌진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 주어진 상은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함께 하는 동료들과 함께 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우선 꼼꼼하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충실한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한 미래! 행복한 농업’을 기조로 잡고 농어민들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항상 우리의 민족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먼저 생각하고, 농어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맞이한 첫 국정감사에서 농어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 및 대안제시를 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듯 합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은 영광이며, 향후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학》에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여절여차자 도학야 여탁여마자 자수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문구는 학문이나 자기 수양을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처럼 현실적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을 보완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제19대 국회 기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농어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국회의원

[12.11.21.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수 상 소 감 문  
국회의원 이 낙 연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4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평가기법으로 심사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험도 없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속된 당에서 책임을 맡아 여러 가지로 분주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한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돼 더욱 기쁩니다. 추상적 통계나 이론적 논쟁보다는 국민의 삶에 직접 관련되는 주제를 선정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을 좋게 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을 아홉 번째 받습니다만, 수상의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수(選數)가 많아져도 타성에 젖지 않고, 늘 초선의원처럼 뛰겠다고 다짐합니다. 함께 고생한 보좌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위원상 수상소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언주(보건복지위, 운영위)

제 생애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감을 치룬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는 두려움과 설레임의 감정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 전부터 국민적인 관심저조와 함께 대선 후보 검증용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초선의원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선의원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인 열정과 참신함으로 임한다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진정한 민생국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준이 초과된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라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인육캡슐의 유해성을 확인하였으며, 사망률 80%에 이르는 로봇수술의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던 것, 또한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으려다 칼에 찔린 시민에 대해 의사자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중심의 국정감사를 실현해 내려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확충노력,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복지 분야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한 것은 성공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노력에 대해 지난 14년 동안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는 ‘국감 NGO모니터단’ 및 시민단체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주신 ‘격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꼼꼼히 챙기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공정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사회단체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동반자이자 감시자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국회의원

이 완 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이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1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에 주로 근무한 노동정책전문가로서 25년간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파악해 왔던 현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평소에 구상했던 대안과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의욕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입법기관을 수행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쟁의 장으로만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초선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의를 전당(殿堂)인 국회가 진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도 촉매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나날이 좋은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윤석입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에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라는 영예로운 평가를 내려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가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사위원들에게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대표단 여러분과 참여해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여 일이라는 시간동안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하느라 고생하신 1천여명의 모니터요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제19대 국회에 재선으로 들어오면서 처음 맡는 국토해양위원회의 민주통합당 간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담과 책임감 속에서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공기업 민영화 저지, 대기업 특혜 부각, 4대강 사업 문제점, 혈세 낭비 실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미 부각된 이슈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을 넘치게 평가받아 오늘 NGO 모니터단 평가 2012 국감 우수 의원에 선정된 것 아닌가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을 받겠습니다.

다시한번,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에 더욱 힘을 받아 남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매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2013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전남 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이재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

2012년 제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면을 빌어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단장님을 비롯 현장 모니터를 위해 자원해주신 모든 분들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세계경제 침체와 유로 재정위기  
악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까지 어려워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경제 속에 고통 받는 국민을 대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의 기본취지인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고 국정감사에 임했기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 상의 의미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초선 의원의  
열정적인 마음을 되새기며 언제나 한결같은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풍성한 결실로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소감문  
이종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분당갑, 새누리당)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임하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노동분야 전문가로서 노, 사, 정의 입장을 모두 듣고, 노사 갈등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 준비 자료였습니다. 어떤 문제든 현장을 알아야 그 핵심이 보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달려가서 직접 문제에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된 개선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여러 사안들이 올바른 방향의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의 엉터리 관리감독 관행이나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문제와 같이 신속한 시정이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또 현대차 철탑농성이나 쌍용차 문제와 같이 우리사회의 갈등 조정시스템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임하도록, 환노위에 몸 담는 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대안마련에 앞장서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저를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상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임을 알고 항상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동익입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사회단체가 평가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여년 넘게 장애인당사자들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목소리로 담아내기 위해 애썼던 저였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는 저에게도 뜻 깊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업주부에게 불합리한 국민연금체계, 대기업 중심의 국민연금 편중 투자, 부당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낮은 현저조사율, 카페인 음료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문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 장애인활동지원인의 열악한 처우문제, 사회복지시설의 낮은 급식단가, 지역별 편차가 큰 의료인 수급문제, 장애아동 돌봄 크레딧 제안,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율 저조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국민연금투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낮은 급식 단가를 올리는 등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다시 심기일전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서민들의 편에서, 서민과 함께 걷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국회의원

## 수상소감문

먼저,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4년 전통의 '국감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경이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경직된 軍의 자세를 질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軍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군 장병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전력지원체계의 홀대를 집중 조명하였고, 먹는 물의 60%가 우물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현 실태를 질타하며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처음과 똑같이 변함없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한기호-

홍지민 국회의원

2012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소감  
새누리당 대구달서(갑) 홍지민 의원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상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도중 파행을 겪었고,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수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생각했다. 초보의원으로서 열심히 준비했고 보좌진과 함께한 고생이 있기에 수상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선정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에 너무나 기뻐던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기간 내내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났고,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 감사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하루하루가 다사다난 했다. 언론을 통해 이전투구의 모습만 비친 정치현장에 부끄럽기도 하고 느끼는 바가 많았던 이번 국정감사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부패와 비리에 파묻혀 있던 자리에 희망을 싹틔울 토대가 되었다는 나의 생각이 NGO모니터단에게도 전달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더욱 마음이 놓였다.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그간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있었던 자잘한 어려움들과 초선의원으로서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상기되는 순간이었다. 떨 듯이 기뻐으며 직원들의 고생에 고맙기도 하였고, 앞으로의 나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짐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또 머릿속의 어려움들이 보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점들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국정감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홍영표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입니다.

먼저 270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주는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로 3년 연속 우수 의원에 선정되어 이번 국정감사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 집니다.

짧은 시간동안 방대한 산하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을 촉구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구미 불산 사고였습니다. 환경부의 미흡한 대처와 사고 이후에도 계속된 인근 공장의 조업문제 등 무능했던 정부의 대처를 지적하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단기적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구미 불산 사고 외에도 우리 생활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실외 공기질, 지하수 문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고용 노동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노조파괴였습니다. 청와대, 총리실, 한국전력, 발전회사로 이어지는 발전노조 파괴 공작의 실체를 2년 동안 추적하여 그 전모를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쓰인 자료를 바탕으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언론을 보고 노조원들이 다시 복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환경정책, 일자리, 노동 정책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활동, 열과 성을 다하는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 감사기간동안 모든 국감 일정에 참석해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주신 NGO 모니터 위원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회의원 洪 永 杓

황영철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소감문」

재선의원으로서 농민과 농촌에 대해 더욱 깊이 살피라는 뜻.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18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국정감사를 치르던 때가 생각납니다.

초선의원으로 국민의 목소리 특히, 서민과 농민의 아픔을 국정감사장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제게 처음 주셨던 국정감사우수의원상은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재선의원으로 다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고 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재선의원으로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만 5번의 국정감사를 치러냈습니다. 매번 국정감사를 치를수록 농민과 농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민과 농촌을 보면서 저의 부족함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비록 아직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고, 아직도 농민과 농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기운을 내봅니다.

오늘의 국정감사우수의원 선정은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깊이 농민과 농촌을 살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농민과 농촌을 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홍천·횡성 지역주민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서민과 농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 변치 않고 농민과 농촌의 현실을 더욱 깊이 살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을동 국회의원

##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출신 김을동 국회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단연 유서가 깊고 명성이 높아 수상의 기쁨이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빡빡하게 진행되는 감사일정에 호흡을 같이 하며 전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14년 동안 한결같이 국회와 정부의 기능 회복과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NGO 모니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대에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은 그저 성실히, 충실히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라 여기고 묵묵히 이를 실천해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으로 격려해주시니 의지와 각오를 새로이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 말의 혼란과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며 많은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시선에서 행정부 사업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함은 당연지사인데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공방만 두드러져 감사 본연의 목적이 여러모로 충족되지 못하고 퇴색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문을 열며 하나같이 입을 맞춰 다짐했던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대선 이슈에 가려진 채 국회조차 외면하기에 이르렀고, 쇠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여망도 허망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정부의 살림살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답답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나친 정쟁으로 가려진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모으고, 독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독도 홍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책을 제시했으며, 지나친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의 단면을 고발하는 등 국민 인권 회복에 관한 사안부터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안까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애국 정신의 맥을 짚어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각오로 민심을 대변하고, 민의를 반영하며 정책질의에 최대 역점을 두었는데, 그 날의 다짐들이 국회가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했다고 여겨져 보람이 크고 수상의 감회가 참으로 남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 숨 쉬는 애국자의 나라, 대한민국!’ 이는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저의 모든 비전과 목표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정권을 놓고 빗어지는 여·야간의 잦은 갈등과 반목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송파병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

2012. 11. 21.

국회의원 김 을 동

강석호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출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먼저 과분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 주신 모니터단의 열 다섯분 공동단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내내 고생하신 천여분의 모니터위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기업들이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에 대한 해결방안과 부실시공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국토해양위원회의 19대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간사로서 국정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국정감사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나름대로 정책국감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소감  
국회의원 이 현재  
(지식경제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경기도 하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하남 국회의원 이현재입니다.

먼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3년 전통에 빛나는 ‘국감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첫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치룬 이번 국정감사에 “서민과 민생을 위한 국감,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모토로 임하여 정부 정책 결과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전 기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덕분에 국감 우수의원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정감사와 제도개선 에 힘써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9대 남은 임기동안 자신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국회의원

<NGO 우수의원 선정 수상소감문\_김희정 의원>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상을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국감 현장에서 쉬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현장을 뛰어다니며 파악한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겸임상임위(문방위, 여가위)를 하느라 몸은 고되었지만 보람은 더 컸습니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핸드폰 이용자들의 피해와 저렴하게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지적한 점,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적으로 한글의 보급을 확대하고 왜곡된 정보의 시정을 요구한 점, 관광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실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점을 개선토록 정부에 요구한 점 등은 여러모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파는 상인입니다. 국민들께서 귀한 세비를 주시면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 작은 희망이라도 선사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소임이라는 자세로 항상 반듯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해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낮고 더 가까이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